

4 뉴스

우리 생활 속 독성학
『햇빛도 때로는 독이다』 출간

이수현 기자 dlingus011208@khu.ac.kr

박은정 의과대학 교수가 생활 속 화학물질을 담은 『햇빛도 때로는 독이다』를 출간했다. 『햇빛도 때로는 독이다』는 독성학 소개를 시작으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마주하는 독성물질과 그 위험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생물을 살게 하는 햇빛도 때로는 독이 될 수 있다. 저자는 농도에 따라 독은 약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독의 특성에 관해 설명한다. 독이 건강을 해치지 않을 수 있는 이유에 대해 “독을 유용하게 사용하려는 독성학자, 의사, 생물학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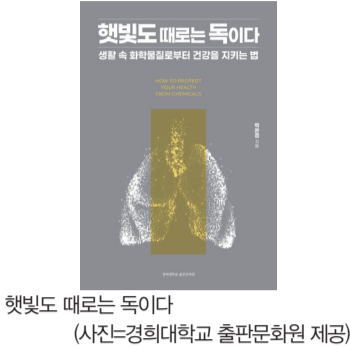
등 과학자들의 노력 덕분”이라 전한다. 책의 끝에서도 독성물질로부터 안전해지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관련 전문 인력과 기관의 충원을 제시하며 분야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 번 언급한다.

흔히 우리는 일상 속 화학물질과 독성물질의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저자는 많은 사람이 “유명 회사 제품이라 믿을 수 있어요,” “안전하다는 말은 독성이 없다는 뜻이 아닐까요?”라고 반문했다며, 독성물질들은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언제든 독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저자는 “단순하게 입으로 먹지 않으면 해가 없다고 생각하곤 하지만 우리 인체의 어느 경로를 통해서든 독성물질은 유입될 수 있다”라고 설명하며, 『햇빛도 때로는 독이다』를 통해 우리 생활과 연계된 독의 실체를 낱알이 파헤치고 있다.

사례로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언급하면서 유명 브랜드를 믿는 것도, 관련 부처에서 관리하고 있으니 시판되는 제품을 믿고 안심하라는 말도 쉽게 넘겨서 안 된다고 말한다.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제품에 사용된 화학물질의 허용기준치 또한 다른 성분들과의 복합작용을 고려하지 않는 농도라고 설명한다. 소비자가 어떤 뜻밖의 환경을 만나게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소비자 스스로 관심을 두고 현명해져야만 또 다른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막을 수 있다고 조언한다.

저자는 “살균, 소독제 시장은 엄



햇빛도 때로는 독이다
(사진=경희대학교 출판문화원 제공)

청나게 확장되며 거의 매일 신제품이 쏟아지다시피 했고, 제품 출시 속도를 고려할 때 안정성에 대한 검사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코로나 시대, 사용이 급증한 살균, 소독제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코로나19 환자의 증상 중 하나인 특발성 폐섬유증은 그 원인이 명확하지 않다. 관련된 모든 부분을 꼼꼼하게 살피고 연구하기에는 시간도 환경도 부족한 상황이다. 저자는 “안전한 농도에 대한 충

분한 검증 없이 무분별하게 사용하면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며 많은 독성 물질을 마주하고 때로는 건강을 위협받기도 한다. 하지만 막연한 두려움을 가질 뿐 독성으로부터 안전할 방법에 대해선 무지한 경우가 많다. 저자는 모르는 게 약이라고 치부하기에는 건강을 위협하는 유해인자가 우리 삶에 너무 가까이, 또 많이 존재하고 있다며 일상생활 속 현명한 소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햇빛도 때로는 독이다』는 독성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낼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 김상욱 물리학과 교수는 『햇빛도 때로는 독이다』에 대해 “라돈 침대, 발암물질 생리대, 미세플라스틱, 가습기살균제, 미세먼지 등으로 자신과 가족을 안전하게 지키고 싶은 사람이라면 꼭 읽어야 할 책이다”라고 추천 글을 남겼다.

경영대학
비제로를
개선요구

강다은 기자 ekdms200202@khu.ac.kr

경영대학의 성적평가 방식 비제로를(B0률)을 둘러싸고 불만이 커지고 있다. 각 대학들이 대면 수업을 확대하면서 성적평가 방식을 상대평가로 다시 전환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영대학에서 2015년부터 운영 중인 비제로를(B0률)이란 시스템 상 제한되어 있는 성적 상한 제도로 상대평가 과목에서 수강생 성적 평균을 2.99 이하로 맞춰야 하는 것을 말한다.

경영대학 행정실에서는 비제로률의 도입 이유에 대해 “성적 인플레이션 문제로 도입했다”며 “정보 공시나 취업 등 학점을 잘 주는 학교라는 이미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타 학교와의 형평성과 취업 유불리 문제로 인해 시행하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현재 우리학교는 코로나 19 상황으로 인해 성적평가 방식을 절대평가 방식으로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외대, 서강대 등 주요대학이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전환하면서 우리학교도 상대평가로 전환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영대학 학생들은

주요대학 경영학과(경영전공) 학점 현황						
대학	A+~B0 기준 누적비율			A+~B+기준 누적비율		
	18년 1학기	19년 1학기	20년 1학기	18년 1학기	19년 1학기	20년 1학기
건국대	69	69.6	89.5	58.4	58.1	78.7
경희대	53.7	55.3	74.3	34.4	36.8	62.6
고려대	84.4	79.5	87.1	73	68.2	77.7
서강대	60.4	63	80.9	48.1	49	66
서울대	76.1	78.1	89.7	68.8	69.4	82.4
성균관대	68.3	68.9	91.3	59.2	59.1	79.2
연세대	79	80.3	93.8	72	72	88.4
한국외대(경영학전공)	63.6	59.8	85.8	55.8	52.7	77.8
한양대	73.5	72.5	79.6	61.9	62.5	67.9

주요대학 경영학전공 학점 현황 (단위:%)

(출처=대학알리미)

상대평가 방식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비제로률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경영대학 재학생인 홍유진(경영학 2020) 씨는 비제로률에 대해 “해당 제도의 순기능을 잘 모르겠다”며 “우리학교 전 학부생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제도가 아닌 경영대학에서만 진행되는 제도는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대학정보공시에 따르면 우리학교는 A+~B0를 기준으로 한 성적 누적비율이 주요 대학 중 가장 낮았다. 경영학과는 상대평가가 적용된 2019년 1학기 기준 A+~B0비율이 55.3%로 같은 기간 성적 누적비율이 가장 높은 연세대와 비교했을 때 약 25%p 낮은 것으로 나

타났다. 서울 내 주요 대학과 비교했을 때에도 우리학교의 A+~B0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B+이상의 누적학점 비율을 40%이내로 제한하는 우리학교 성적표준화 제도 기준인 A+~B+ 비율을 비교했을 때 경영학과는 다른 학과보다도 비율이 현저히 적었다. 2019년도 1학기를 기준으로 경영학과가 강의에서 해당 성적 비율이 평균 36.8%를 차지했던 것에 반해 Hospitality경영학부는 44.5%, 경제학과는 42.7%, 기계공학과는 48%를 차지해 경영학과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해당 수치는 타 학교와 비교했을 때에도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절대평가가 적용되었던 2020년 1학기 A+~B0 성적 누적

비율은 우리학교가 74.3%, 서강대 80.9%, 연세대 93.8%, 서울대 89.7%로 이전보다 격차가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주요 대학들에 비해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학생들의 불만에 경영대학 행정실은 “비제로률의 취지 자체는 좋게 시작했지만 경영대 학생들이 역차별이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비제로률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2학기 혹은 내년 정상 학기로 돌아갔을 때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불편함을 가지고 학생회나 동아리 측에서 적극적인 문제 제기를 한다면 적절한 과정을 거쳐 조정이 가능하다”며 비제로률의 개편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전했다.

장애학생
학습도우미
지원부족

최예령 기자 hery2020@khu.ac.kr

올해 1학기 국제캠퍼스(국제캠) 장애학생 학습도우미 지원자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학생지원센터(국제)에 따르면 이전에는 장애학생 학습도우미가 대부분 매칭됐지만, 이번 학기에는 장애학생 학습도우미를 필요로 하는 24개의 강좌 중 4개 강좌에 아직 도우미-지원자 매칭이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학생 학습도우미는 정상적인 수업 참여가 어려운 장애학생을 위해 수업 내용 대필, 의사소통 지원 등의 역할을 한다.

장애학생지원센터(국제)는 “현재 학습도우미와 지원자가 매칭이 됐다 하더라도 추후 지원자의 수강정정과 휴학 등의 개인 사정으로 활동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며 “장애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도우미인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장애학생 학습도우미는 매칭이 완료될 때까지 상시 모집 중이다. 활동 혜택은 장학금과 봉사시간 중에 택할 수 있다. 봉사시간 선택 시 휴학생도 학습도우미 지원이 가능하다.